

목회자칼럼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

2024 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누가복음 14:23 절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모두를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잔치인데 세상의 것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변명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전도해야 할 대상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하셨을 때 배우자, 가족, 자녀, 친구, 이웃, 옛 성도등 약 30 명의 이름들이 올라왔습니다. 한분 한분들이 모두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다시 교회로 나오고,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두번 권면한 것이 아닌 수년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집, 교회로 전도해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녀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욱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오셨고, 나름되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몰랐는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의 '가나안' 을 거꾸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가 됩니다. 즉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온다는 분들을 '가나안 성도'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자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전에는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다가 대학을 다니며 신앙이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적게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어떤 분은 직분자로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해서, 교회에 일어난 싸움이나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들어서 떠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발걸음을 다시 옮기지 않는 이유는 결국 사단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영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있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 나와야 할 발을 얇은뱀이가 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영, 사단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붙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난 주 전도 세미나의 핵심이고 그 간절한 눈물, 능력의 기도와 함께 강권하여 이끄는 눈물의 수고로 복음과 전도의 씨를 뿌릴 때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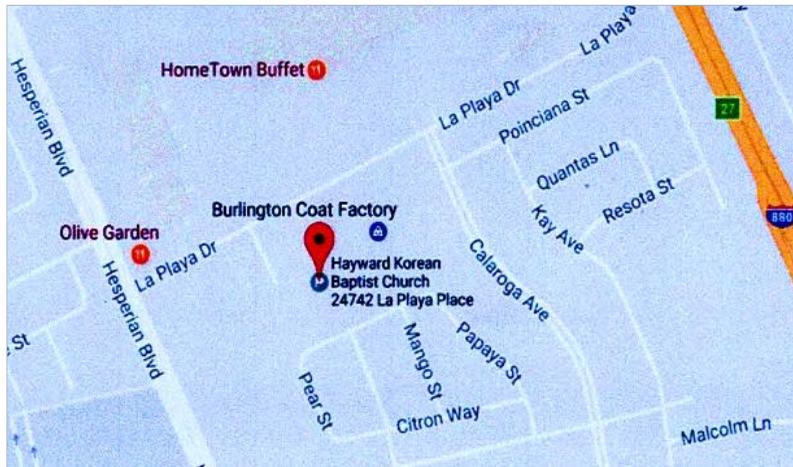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10:30 A.M.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12:00 P.M.	각전도회교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Daily T-Sat 6 a.m.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Monthly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i>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i>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2024 년 5 월 26 일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예배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 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이강선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한계를 넘는 복 (대상 4: 9-10) ...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2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지난주설교요약

“견고한 믿음” (로마서 8:31-3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나의 필요가 내가 원하는 때에 채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과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했는데도 전혀 변할 기색이 보이지 않을 때 낙담되고 포기하고 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원함대로 상황과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팔려 갔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극악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분명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간구이고, 필요한 원함이고,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은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견고히 서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 어려운, 말도 되지 않는, 변하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분명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28 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분명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아시고 결국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기도함 속에 감사와 기쁨, 담대함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전도 세미나 & 제직 수양회** - 지난 주 전도 세미나와 제직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상속세 세미나** - 오늘 예배 후에 상속세 & 절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 Car Wash** - 오늘 나바호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Car Wash 가 있습니다
- 나바호 단기선교** - 나바호 단기선교가 6.30-7.6 일까지 있습니다. 총 16 명 (어른 6, 학생 10) 신청했습니다.
- 성찬식** - 성찬예식이 6월 2일 주일예배에 있습니다.
- 부장 & 운영회** - 부장 & 운영 위원회 모임이 6월 2일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야외예배** - 야외예배가 6월 9일에 있습니다. 장소: 오전 11시 2451 W. Tennyson Rd Haywrad, CA 94541
- 목회자 동정** 목사님 가정은 6월 3일-27일 까지 한국 방문을 합니다
- 졸업** -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입니다. 차예린, 레이첼, 이주안, 이주찬 6월 2일 주일예배에 축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사 및 모임

5 월	어머니날	5 월 12 일 (주일)
	제직 수양회	5 월 24 일-25 일
	새신자 환영	5 월 (미정)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26	6/02	6/09	6/16
대표기도	이강선	정병철	유영민	손정임
헌화성도	오양순	손정임/이삼희	이현숙	이현숙
봉사당번	각전도회	믿음구역	믿음구역	소망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2,505.00	

후원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안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